

“남아도는 쌀 가공식품·수출 확대로 돌파구 찾아야”



밥이 진심
밥심이 쌀심

<5>10주년 맞은 ‘쌀의 날’ 행사

매년 8월 18일은 ‘쌀의 날’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이 주최하는 쌀의 날 행사는 쌀 한톨을 생산하는 데 농부의 손길 88번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15년 지정되었다. 올해로 10회째 농민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는 자리는 계속되고 있지만, 농민의 마음은 해가 갈수록 타들어가고 있다. 쌀 소비량이 줄면서 쌀값 역시 매년 하락해 농사를 지을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쌀 가격은 매년 하락해 한 가마(80kg)에 17만원 선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30년 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쌀과 농민, 농업의 ‘위기’ 속에 지난 14일 ‘2024년 쌀의 날 행사’가 열렸다. 특히 올해는 기념식 형태로 치러졌는데, 참가자들은 정부와 농협, 더 넓게는 전국민적인 쌀 소비 촉진에 참여를 호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열린 제10회 쌀의 날 행사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실장, 조희성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남인숙 한국소비자연맹협회장, 농협 RPC 및 벼 협의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범농협·농식품부 참석 쌀 소비 결의 쌀 가공식품 전시·숯폼 콘텐츠 시상

강호동 회장은 “쌀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국민의 주식, 생명의 원천이지만, 안타깝게도 쌀 소비량이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며 “쌀 한 가마에 18만원도 안 되며,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총 15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도 했다”면서 줄어드는 쌀 소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정부와 농협은 쌀 관련 기념행사를 비롯해 쌀 식품 수출 지원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쌀에 대한 소비 확대, 재고 소진, 신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아접밥 먹기 등 소비 촉진 운동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지속 전개해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쌀 가공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며 “2022년 국내 쌀 가공산업은 8조원을 돌파했고, 수출도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해 지난해 2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올해 제 3차 쌀 가공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유망 품목을 선정해 수출, 소비 확대



지난 14일 서울시 중구 ‘한국의 집’에서 열린 쌀의 날 10주년 기념식에서 농협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전국 8도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김밥을 들어보이고 있다.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밥으로 대표되는 쌀을 이용한 k-푸드의 인기는 반가운 소식으로, 또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해외 수출 확대도 절실하다. 정부와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매년 쌀 가공품 포럼을 열고, 쌀 가공제품의 품질 고급화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만난 박병찬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은 “쌀 소비 확대 및 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쌀 생산 중심 정책에서 쌀 소비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쌀 공급과잉은 소비 급감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가공용 쌀 소비 확대만

이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제안했다. 문병안 농협 RPC 전국협의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농협은 전년 대비 37만톤의 쌀을 더 매입했으나 소비량이 감소해 재고가 많이 남았다”며 “양곡사업은 2022년 3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2000억원대의 손실이 예견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곧 조생종쌀이 나오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상황으로 농협이 추진 중인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이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전남 새청무를 비롯해 전북 신동진 등 팔도를 대표하는 8개 품종을 사용한 ‘8색 김밥’ 만들기 및 시식행사를 펼쳤다. 외국인 유학생은 전국 8개 품종으로 만든 김밥을 직접 맛보며, 뛰어난 대한민국 쌀을 맛봤다. 이어서 앞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쌀밥 숯폼콘텐츠’ 수상작을 관람했다. 이날 행사장 한편에는 쌀로 만든 과자류 등 쌀 가공식품을 전시해 방문객이 맛볼 수 있도록 했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열린 ‘농사랑 밥사랑’ 공모전 수상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끝> /서울·글·사진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상반기 기업 총수 임금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195억원 1위

퇴직금 171억원 포함...2위는 신동빈 롯데 회장 117억원

올 상반기(1~6월) 국내 기업 총수 중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부회장은 효성이 두 개의 지주회사로 나뉘며 기존 지주사 효성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크게 높아졌다. 전문경영인 중에서도 퇴직금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으로 100억원 이상 받기도 했다.

15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조 부회장은 ㈜효성으로부터 194억 9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는 20억원 정도지만, 퇴직금 171억 9200만원까지 포함됐다. HS효성은 지난 7월 1일 효성그룹으로부터 공식 분리되어 새로 출범했으며, 신설 지주사인 HS효성을 조 부회장이 맡고, 기존 효성그룹은 조 부회장의 형인 조현준 회장이 이끌고 있다.

그 다음은 신동빈 롯데 회장(117억 8900만원)이었다. 신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112억 5400만원을 받아 총수 가운데 연봉이 가장 높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롯데지주(41억 7100만원), 롯데

케미칼(20억원), 롯데칠성음료(14억 9900만원) 등 7개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았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96억 1000만원),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81억 6000만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64억 583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58억 3900만원), 구자은 LS그룹 회장(56억 27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 상반기에도 급여를 받지 않아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 가고 있다.

총수를 제외한 전문경영인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백우석 OCI홀딩스 고문으로 퇴직금 242억원을 포함해 247억 8773만원을 받았다. 박성우 SK하이닉스 경영자문위원(전 부회장)은 2017년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113억원을 포함해 117억 8900만원을 받았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퇴직금 39억 9600만원을 포함해 66억 8000만원을 받았고, 지난 3월 퇴임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도 퇴직금 29억 4100만



조현상 부회장



신동빈 회장

원을 포함한 40억 6000만원을 수령했다. 상반기 증권업계 임직원 연봉 1위 타이틀은 이종석 유안타증권 리테일 전담 이사가 차지했다. 유안타증권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종석 이사 44억 3700만원, 신승호 차장 23억 5800만원으로 귀망정 대표이사(19억 5000만원)보다 더 쟁쟁했다. 전직 임원을 통틀어서는 정영태 NH투자증권 전 사장이 올해 상반기에 퇴직금을 포함해 59억 1600만원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신세계 ‘잔망루피’ 활용한 팝업 스토어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

광주신세계가 호남권 최초로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잔망루피’ 캐릭터(사진)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열고, 증정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펼친다.

광주신세계는 15일 “오는 29일까지 분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ZANMANG SPLASH’를 주제로 풀파티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잔망루피는 보로로의 친구로 처음 알려진 잔망스러운 캐릭터로, 온라인 상에서 잔망루피 이모티콘 등이 학생, 직장인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야외 풀장을 배경으로 잔망루피가 풀파티를 떠난 콘셉트로 휴양지 모습을 연출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잔망루피와 사진촬영이 가능한 포토존도 준비했다.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광주신세계는 광주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잔망루피 팝업스토어를 기

념해 모든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노티드와 콜라보한 한정판 부채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 3만원 이상 구매 시 룰렛 참여권을 최대 3회 증정한다. 룰렛은 팽이 없이 무조건 당첨될 수 있으며, 상품은 루피 인형, 루피스티커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됐다.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잔망루피 한정 프레임 네컷사진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고, 패션 10만원 이상 구매시 당일 사용가능한 1만원 할인권도 선착순 증정한다.

이 밖에도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잔망루피 실리컨 컵코스터 메통 루피’ 등 신상품과 봉제인형 등 250여종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대우행을 이끌고 있는 잔망루피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캐릭터로, 지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광주신세계를 찾아 다양한 잔망루피 상품들을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슈퍼식스’ 팝업스토어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이벤트홀에서 고객들이 ‘슈퍼식스’ 팝업스토어를 방문해 의류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점은 오는 22일까지 남양주 프리미엄 직수입 빈티지 스토어인 슈퍼식스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본부세관장, 향토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보해양조 방문 관세행정 지원 약속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 14일 K-주류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보해양조(주) 장성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수출입 통관애로가 있는 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관세행정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보해양조(주)는 1952년 전남 목포에 설립된 주류 전문 제조업체로, 2023년 매출 930억원을 달

성한 향토기업이다. 2023년 기준 420만 달러 상당의 주류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또 증류주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 권위의 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에 대한 혁신을 통해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하는 있다.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FTA 활용 등 통해 주류업체가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목포벤처산업지원센터 28일까지 입주 기업 모집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신규 입주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목포시 석현로에 위치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사업은 목포시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45개 기업 입주 공간지원과 함께 네트워킹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문화산업 분야 창업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규모는 총 4개사로 입주면적은 38.25㎡(12평), 49.5㎡(15평), 63.0㎡(19평), 99.0㎡(30평)이다.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연장심사를 통해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를 제외한 월 임대료가 무상으로 지원되며, 센터 내 지원시설 이용 혜택과 함께 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입주기업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인용 진흥원 원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전남소방과 ‘위기대응’ 업무협약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유역본부와 지난 14일 전남소방본부와 ‘위기대응 공동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 등 국민의 인명·재산피해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난 2022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설물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보공유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상호지원 협조 및 합동 모의훈련 ▲소방 안전 및 화재 예방·홍보·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급 상황시 인공 광역상수도 충수설비(19개소) 이용 ▲자연재해(호우·태풍)로 인한 피해복구 활동 및 병물 지원 등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